

#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22주일(순교자 성월)  
제32권 40호(나해) 2012-9-2

## [묵상]



순교자 성월 : 성인들 초상화에 성수를 뿌리는 교황 요한 바오로2세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던 제자 몇 사람,  
이를 지켜본 바리사아들이 시비를 겁니다.  
다행히 예수님은 손을 씻으셨나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과 권위만 믿고  
율법을 무시한 제자들을 감싸시는 예수님  
새로운 가르침을 주실 기회로 삼으십니다.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신 예수님  
하느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깨끗함은  
형식적인 청결함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깨끗함에 있다고 하십니다.  
겉뿐만 아니라 속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입술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이  
하느님을 참되게 섬기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저희 안에서 나오는 나쁜 생각들  
그 생각들이 만들어내는 나쁜 행동들  
그 나쁜 행동들로 더럽혀지는 저희들  
안에서 나온 것들로 더럽혀집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 안에서 나오는 예쁜 생각들  
그 생각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행동들  
그 행동들로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기도,  
안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저희와 세상을 아름답게도 합니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 미사

|     |                              |                                |
|-----|------------------------------|--------------------------------|
| 수요일 | 저녁 미사                        | 오후 7:30                        |
| 목요일 | 저녁 미사                        | 오후 7:30                        |
| 금요일 | 아침 미사                        | 오전 8:30                        |
| 토요일 |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br>특전미사 (청년미사) | 오전 8:30<br>오후 7:00             |
| 주일  | 아침 미사<br>학생미사(영어)<br>낮 미사    | 오전 7:30<br>오전 9:30<br>오전 11:00 |

## 주간행사표

|     |                                                                                                                                                                                   |                                                                                              |
|-----|-----------------------------------------------------------------------------------------------------------------------------------------------------------------------------------|----------------------------------------------------------------------------------------------|
| 수요일 |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br>성경공부(그룹반)<br>레지오 마리아<br>예비자 교리반                                                                                                                                | 오후 2:00<br>오전 10:00<br>오후 8:00<br>오후 8:00                                                    |
| 목요일 | 성시간(첫목요일)<br>레지오 마리아<br>병자영성체(1째주)<br>성령기도회<br>울뜨레아(4째주)                                                                                                                          | 저녁 미사후<br>오전 10:00<br>오전 10:00<br>오후 8:00<br>오후 8:00                                         |
| 금요일 | 성경공부(그룹반)<br>M.E. Sharing(3째주)                                                                                                                                                    | 오전 9:30<br>오후 7:00                                                                           |
| 토요일 |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br>레지오 마리아<br>배튼 청년모임                                                                                                                                             | 오후 6:00<br>오후 5:30<br>오후 6:00                                                                |
| 주일  |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br>아도라페 성가대<br>글로리아 성가대<br>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br>2째주 - 모임의 날<br>● 안나회/양업회, 성모회<br>자모회/대건회/원서회<br>● 꾸리아<br>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br>● 요셉회 ● 제대회<br>-행사의 날<br>4째주 - 사목회 | 오전 중<br>오전 8:30<br>오전 9:00<br>오후 1:00<br>오후 1:00<br>오후 1:45<br>오전 9:00<br>오후 1:00<br>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             |                                                                                                                                       |
|-------------|---------------------------------------------------------------------------------------------------------------------------------------|
| 토 요         | (연)김중호                                                                                                                                |
| 특전미사        | (생)김석기 스테파노 가정                                                                                                                        |
| 주 일<br>낮 미사 | (연)하분학 마리아, 이경용 야고보,<br>이현호 요한, 김풍길 바오로,<br>고준희 제임스, 김창운 & 편성근,<br>엄익수 바오로, 민소에 모니카,<br>김동욱 요아킴, 김종환 야고보,<br>김영옥 안젤라, 이현준 베드로 & 이크라스천 |
|             | (생)이윤조 글라라,<br>이준영 마르코 & 이제이미 크리스티나,<br>임순 테레사, 신대진 베드로                                                                               |

###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신명기(Deuteronomy) 4,1-2.6-8

화답송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흠 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 진실을 말하는 이,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는 이라네.○  
○친구를 해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이라네.  
그는 악인을 없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  
○이자를 받으려 돈놀이 않으며,  
죄없는 이를 해치는 뇌물 받지 않는다네.  
이 모든 것 행하는 그 사람,  
영원토록 흔들림 없으리라.○

제 2독서 야고보서(James) 1,17-18.21-22.27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하느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네.○

복 음 마르코(Mark) 7,1-8.14-15.21-23

영성체송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 오늘의 성가

|     | 청년미사(특전)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미사곡 |          |       | 33-42 |
| 입당  | 228      | 228   | 182   |
| 봉헌  | 269      | 269   | 254   |
| 성체  | 106      | 106   | 290   |
| 파견  | 343      | 343   | 345   |

###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 ▶제2부 교회 안의 말씀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요한 1,12)

### 전례, 하느님 말씀의 특전적 장소

### 거룩한 전례 안의 하느님 말씀

52). 교회를 “말씀의 집”으로 볼 때에, 가장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거룩한 전례입니다. 전례는 하느님께서 우리 삶의 현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듣고 응답하는 당신 백성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탁월한 장소인 것입니다. 전례 현장 「거룩한 공의회」가 말하듯이, “성경은 전례 거행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독서들을 봉독하고 강론으로 해설하고 시편을 노래하며, 성경의 영감과 감동에서 전례의 간구와 기도와 성가가 울려 퍼지고, 또한 전례 행위와 표징들이 성경에서 그 의미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 말씀 안에 현존하시어, 교회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당신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실상, “전례 거행은 바로 하느님 말씀의 지속적인 고충만하고 효과적인 선포가 됩니다. 그러므로 전례에서 끊임없이 제시되는 하느님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살아있고 힘 있는 말씀이 되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교회는 언제나, 전례 행위에서 하느님의 말씀에는 그 말씀을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움직이게 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작용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해 왔습니다. “성령의 영감과 도움으로 하느님 말씀이 전례 행위의 토대가 되고, 온 삶을 받쳐 주는 규범이 된다. 성령의 활동은(……) 모든 신자 회중을 위하여 선포된 하느님 말씀으로 전해진 그 모든 것이 각자의 마음속에 파고들게 하며, 모든 이의 일치성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은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여러 가지 활동을 촉진한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서 전례 행위가 차지하는 필수적인 가치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례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은 현재적이고 살아 있는 말씀으로 기념되며, 성경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은 언제나 전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사건의 ‘오늘’을 성경 전체에서 찾아보라고 권고하시며 몸소 그렇게 하신 대로, 교회는 전례에서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읽고 풀이해 주신 그 방식을 충실히 따른다.”

또한 여기에서, 전례주년의 리듬에 따라 성경을 선포하고 듣는 교회의 지혜로운 교육 방법도 드러납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이 시간 안에서 연장되는 것은 특히 성찬 거행과 시간 전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파스카의 신비가 빛을 발하고 있고, 성사적으로 현재화되는 그리스도와 구원 역사의 모든 신비가 거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계속>

## 초심

훌륭한 인물이 되고, 중요한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초심, 열심, 그리고 뒤희입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마음은 초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초심 속에 열심과 뒤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심에서 열심이 나오고, 초심을 잃지 않을 때 뒤희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초심(初心)이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처음 품는 마음, 처음에 다짐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첫 마음, 즉 초심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마음 안에는 교만이 싹트고 마음의 열정이 식어 버리게 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심을 잃어버린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을 비판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 따집니다. “어찌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마르 7,5ㄴ)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이들을 위선자로 칭하며 혹독한 비난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마르 7,6ㄷ-8)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그 당시에 조상들의 율법에 충실하며 모든 계명을 지키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발전시킨 많은 규정을 지켰습니다.

어쩌면 신앙적으로 매우 열심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왜 위선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비

난하셨던 것일까요?

사실 이들은 손을 씻는 행위의 본질인 청결이나 위생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켜야 할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서 이렇게 따져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이 그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고 외형적인 모습만 남아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하느님의 율법이 주는 본래의 뜻을 저버리고 단지 외적인 형식에만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처음에는 아주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본래의 정신이 흐려지고 펜스레 걸다리가 붙어서 결국에는 본래의 정신은 없어지고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하느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그 첫 마음, 즉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듯 형식주의에 빠졌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위선자라고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은 영원한 초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준석 토마스아퀴나스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수

### 이번주 전례봉사가

| 이번 주  | 토요특전<br>(청년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해설자   | 김은지<br>릴리안     | 김숙희<br>유소사 세실리아 | 채승희<br>에스터   |
| 제1독서자 | 임정빈<br>보스코     | 송현식<br>바오로      | 이영석<br>크리스토퍼 |
| 제2독서자 | 곽수진<br>보나      | 정광미<br>프란체스카    | 전하현<br>마리아   |
| 제물봉헌자 |                |                 | 하버/카슨<br>2만  |

### 다음주 전례봉사가

| 다음 주  | 토요특전<br>(청년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해설자   | 이은지<br>수산나     | 신덕례<br>테레사  | 남성철<br>베네딕도 |
| 제1독서자 | 임정빈<br>보스코     | 이민상<br>요한   | 유철희<br>바오로  |
| 제2독서자 | 김은지<br>릴리안     | 이순자<br>비비안나 | 유현자<br>안나   |
| 제물봉헌자 |                |             | 토런스<br>동 2만 |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2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9월

- ◆ 봉성제 : 6일(목) 오전 10시부터
- ◆ 성시간 : 6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 진행 : 토런스 북구역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순교자들 대축일 경축이동 : 23일(주일:본당의 날)

◆ 한가위 합동위령미사

- 9월30일(주일) : 오전 7시30분, 오전 11시  
(오전9시30분 학생미사는 일반주일미사로 봉헌합니다.)

◆ 예비자 교리반(및 신자 재교육) 환영식

- 환영식 : 오늘 주일(2일) 낮미사후 강당
- 교리시간 :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후(세례신자들 중에 교리를 다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세례식 예정 : 2013년 부활절
- 교리지도 : 이장환 마르띠노 본당 신부님

◆ 어린이복사단 모임

- 일시 : 오늘 주일(2일) 학생미사후 신부님 집무실
- 주일학교 복사단원은 빠짐없이 참석하기 바랍니다.
- 문의 : 본당수녀님, 황선흥 그레고리오 ☎(424)903-6637

◆ 청소년분과위 친목모임

- 일시 : 9월9일(주일) : 오후 4시
- 장소 : 친교장(BBQ 파티)
- 대상 : 주일학교 교사, 한국학교 교사, 배론청년회 회원, 자모회간부(부부동반하셔도 됩니다.)
- 문의 : 청소년분과장 남성철 베네딕도 ☎(310)408-1443

◆ 본당 제대회 총모임

- 일시 : 9월16일(주일) 낮미사후 강당  
(점심을 함께 한후 지난 1년간 사업보고가 있습니다.)
- 문의 : 제대회장 윤경옥 실비아 ☎(909)557-7490

◆ 백삼위 본당의 날 행사 안내

- 일시 : 9월23일(주일) 오후 2시 성전
- 행사내용 : 구역별 장기자랑대회(6구역)
- 시상 : 1등 \$300, 2등 \$200, 3등 \$100
- 친교나눔 : 오후 5시부터 친교장

◆ 대전회 여름캠프

- 일시 : 9월8/9일(토, 주일)
- 장소 : 팜스프링스 세도리치 매리엇
- 문의 : 유석영 대전회장 ☎(310)997-5388

◆ 안나회/요셉회 효도관광

- 일시 : 10월9일(화)
- 장소 :레이크 엘시노 온천장
- 회비 : \$20(1인), \$30(부부, 가족2인 동반시)
- 신청 : 10월2일(화)까지, 55세이상 선착순 45명
- 준비물 : 수영복, 따뜻한 겉옷, 타올
- 문의 : 한춘선 루시아 안나회장 ☎(310)738-4387

◆ 개정된 메디케어 건강보험/올바른 장례준비 강의

- 일시 : 10월21일(주일) 오후 1시
- 장소 : 강당
- 강사 : 이정훈 안셀모
- 문의 : 사회복지분과장 차인수 안드레아 ☎(310)256-6001

◆ 홍보분과의 산하단체인 홈페이지 동호회 발족

- 성당 홈페이지에서 사진과 글로 소식을 나누는 모임.  
관심있는 교우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홈페이지(<http://103skcc.org>)의 알림게시판 참조
- 문의 : 현석주 아오스당 ☎(310)594-9472

◆ 남가주 M.E. 30주년 기념책자 발행

- 1차(1982년)~43차(1999년) 수강자들의 단체사진, 명단, 행사사진 등을 수집합니다.
- 책자에 게재할 광고 접수
- 문의 : 정동호 하삼바오로 & 병옥 율리아 ☎(310)780-9055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9월2일(주일) : 레이버데이 연휴(친교자리 없습니다.)
- 9월9일(주일) : P.V. 2반(제육볶음+상추쌈 \$3)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교무금            | 강순복 강인모 고천용 국세찬 금동균 김성현 |     |     |      |     |     | 성전헌금             | 강순복 강인모 고천용 국세찬 금동균 김윤진 |     |     |      |     |     |
|----------------|-------------------------|-----|-----|------|-----|-----|------------------|-------------------------|-----|-----|------|-----|-----|
|                | 김윤진                     | 김준호 | 김찬구 | 김충섭  | 박완철 | 오강남 |                  | 김준호                     | 김찬구 | 김충섭 | 박완철  | 오수인 | 윤화경 |
| 오수인            | 육근주                     | 윤석구 | 윤화경 | 이민상  | 이병우 | 이영희 | 이민상              | 이병우                     | 이영희 | 이영무 | 이형삼  | 임한나 |     |
| 이영희            | 이영무                     | 이인두 | 이형삼 | 임한나  | 장영진 | 최이원 | 최이원              | 최태훈                     | 홍광선 | 홍석인 | 송마이클 |     |     |
| 최이원            | 최태훈                     | 홍광선 | 홍석인 | 송마이클 |     |     |                  |                         |     |     |      |     |     |
| 합계 : \$3,090   |                         |     |     |      |     |     | 합계 : \$1,875     |                         |     |     |      |     |     |
| 미사헌금 : \$2,823 |                         |     |     |      |     |     | 주보광고후원 : \$1,200 |                         |     |     |      |     |     |
|                |                         |     |     |      |     |     | 한남체인도네이션 : \$380 |                         |     |     |      |     |     |

## 공지사항

### 주일학교/한국학교 소식

#### 주일학교 / 한국학교 개학

- 학생미사 : 오전 9시30분
- 개학일시 : 9월9일(주일) 주일학교 오전 10시30분(지침물 성경), 한국학교 낮 12시

#### 주일학교 2013학년도 Teacher Lesson Plan 세미나

- 일시 : 9월9일(주일) : 낮 12시~오후 4시 강당
- 대상 : 주일학교 교사
- 문의 :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장 ☎(213)258-8665

#### 한국학교 설명회

- 일시 : 9월9일(주일) : 학생미사후 오전 10시30분 강당
- 대상 : 학부모님들과 자녀들의 한글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문의 : 한국학교 교장 김화경 스텔라 ☎(310)464-7490

#### 한국학교 2012/2013학년도 등록 받고있습니다.

- 등록시간 : 주일학생미사 · 11시미사 전후

## 남가주 소식

#### LA대교구 연례 다민족문화를 위한 미사에 초대합니다.

- 일시 : 9월8일(토) 오전 10시(15분 전까지 도착바람)
- 올해의 주제 : "Rooted in Christ-Firm in the Faith"  
동정마리아 탄생축일(9월8일)미사와 함께 진행
- 주례사제 : 호세 고메스 LA대주교
- 장소 : LA대교구 천사의모후 주교좌 대성당  
(555 W. Temple St., LA 다운타운)

#### 성모님을 통한 예수님과의 봉헌 및 봉헌 갱신미사

- 일시 : 9월7일(금) 오후 7시
- 장소 : LA 성 바실 천주교회 본당(637 Kingsley Dr.)
- 대상 : 전신자 \* 준비물 : 묵주와 가톨릭 성가집
- 문의 : 파타마의 세계사도직(푸른군대) 미주평의회  
회장 주배석 비오 ☎(818)571-8438

#### 제16회 남가주한인 가톨릭 미술가협회 정기전시회

- 일시 : 9월15일(토; 오프닝리셉션 오후5시)~28일(금)
- 주제 :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 전시내용 : 그림, 사진, 설치미술, 조각, 공예 등 20여점
- 장소 : Lee & Lee 갤러리(3130 윌셔블러바드 #502, LA)
- 문의 : (213)365-8285 \* 빌딩 뒤와 지하에 주차장 있음

#### 성 이냐시오 19번 영신수련 피정자 모집

일상의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느님을 체험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삶으로의 초대.

- 기간 : 2012년 9월~2013년 6월
- 회비 : \$700(도네이션으로 봉헌됩니다.)
- 주관 : 로올라 영성센터(오렌지카운티)
- 문의 : 전아네스 ☎(213)507-1144, 최아우렐리아(562)233-7163

## 소공동체 9월 반모임 안내

| 소공동체 부 장              |     |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                                           |
|-----------------------|-----|--------------------------|-------------------------------------------|
| 차 장                   |     |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        |                                           |
| 차 장                   |     |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                                           |
| 구역/장                  | 반   | 반장                       | 장소/날짜                                     |
| 토런스 동<br>김춘자<br>막달레나  | 1   | 이순자 비비안나<br>213-675-0498 | 김정희 올리아 780-3787<br>9/8(토) 오후 6시 성당       |
|                       | 2   | 김찬구 요한<br>701-6343       | 오안젤라, 조마리아 408-7697<br>9/8(토) 오후 7시 성당    |
|                       | 3   | 문지숙 엘리사벳<br>854-9407     |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br>9/14(금) 오후 8시 성당     |
| 토런스 서<br>장정진<br>베로니카  | 1   | 이진향 아네스<br>989-0366      | 야외모임 989-0366<br>9/7(금) 오후 6시 할리웃보울       |
|                       | 2   | 유선영 클라라<br>424-241-5988  |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br>9/9(주일) 오후 1시 성당  |
|                       | 3   | 신경희 클라라<br>424-903-5051  |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br>9/9(주일) 오후 1시 성당  |
| 토런스 남<br>이희경<br>크리스티나 | 1   | 오창애 안나<br>974-2857       | 조준재 요셉 424-263-2493<br>9/21(금) 오후 7시30분   |
|                       | 2   | 박정람 마르시아<br>634-6923     |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br>9/18(화) 오전 11시       |
|                       | 3   | 전하현 마리아<br>213-550-6653  | 본당의 날 행사 대체<br>9/23(주일)                   |
| 토런스 북<br>최미열<br>클라라   | 1   | 조화숙 안젤라<br>213-272-8393  | 오세원 아타나시오 490-3358<br>9/8(토) 오후 6시30분     |
|                       | 2   | 1반과 같음                   | 1반과 같음                                    |
| 하버 카슨<br>이정자<br>아그네스  | 1/2 | 주영애 쥘마<br>818-640-3656   | 주대종 다니엘 818-640-3656<br>9/8(토) 오후 7시      |
|                       | 3   | 이영희 카타리나<br>518-1736     |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
| P. V.<br>김명재<br>아가다   | 1   | 남경희 베네딕타<br>384-3289     | 고천용 376-6328<br>9/14(금) 오후 6시30분          |
|                       | 2   | 금유미 크레센시아<br>482-9108    |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br>9/14(금) 오후 7시 성당장당  |
|                       | 3   | 박은혜 클라우디아<br>377-7063    | 이영석 크리스토퍼 796-6763<br>9/14(금) 오후 7시 성당장당  |
|                       | 4   | 이귀란 아네스<br>617-3568      | 영희가보라 프란체스카 617-3568<br>9/11(화) 오전 10시30분 |

### 이번 주 단체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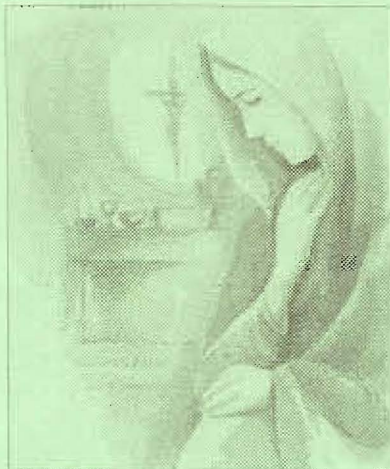
|             |       |
|-------------|-------|
| 구역장 / 반장 회의 | 오후 1시 |
|-------------|-------|

### 다음주 단체모임

|          |  |
|----------|--|
| 제단체모임의 날 |  |
|----------|--|

## 제대와 감실의 차이

☞ 성당 문을 열고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대, 십자가, 감실 등이 먼저 눈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성수대에 오른손을 모아 성수를 찍어 십자성호를 그은 후 인사를 합니다. 어디에 먼저 인사를 해야 할까요? 제대 일까요? 감실 일까요? 아니면 십자가입니까?



정답은 제대(祭臺)입니다. 우리가 어느 가정에 초대받았다고 합시다. 가장 먼

저 그 집의 주인을 찾아 인사를 한 다음 초대받아 온 또 다른 손님들과 인사를 함께 나눕니다. 마찬가지로, 성당을 찾은 신자들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가장 먼저 인사를 드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대는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제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례 즉 미사가 거행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분은 살아 있는 돌이십니다.”(1베드 2,4)

그리스도 공동체가 그리스도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제대 없이 그리스도를 언급할 수 없습니다. 제대 위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점이자 원천인 성찬례가 거행되기에 성당의 중심은 언제나 제대가 됩니다. 사제가 미사를 집전할 때 제단에 올라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상징인 제대에 인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독서 봉사자도 감실이나 십자가가 아닌 제대에 인사를 드리고 독경대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감실(監室)은 제대 위에서 거룩히 변모하신 성체를 모셔두는 곳입니다. 교부(敎父)들은 예수님의 육신을 잉태한 마리아의 태(胎)가 바로 최초의 감실이며 모든 감실의 원형이라고 하였습니다.

성체를 따로 모시는 이유는 병자를 위하여, 혹은 어떤 사정으로 미사에 참여하지 못한 신자에게 성체를 영해 주기 위한 전례 공간입니다. 또한 미사 때 남은 성체를 보관하며, 빵의 형상 속에 계신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흠송하기 위해서 성체를 모셔두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실이 교회를 형성하는 원천인 미사를 거행하

는 제대보다 더 중심일 수는 없습니다. 감실은 그 자체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제대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현존을 표시하는 장소이기에 그만큼 존중을 받는 것입니다. 제대와 연계되지 않는 감실, 성찬례와 상관없는 감실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대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구원의 표이며 성당 건축의 중심점이며 미사의 중심 장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모퉁잇돌이십니다.”

(에페 2,20)

◆김지영 사무엘 신부 / 서울대교구 독산1동성당 주임

## 어린이의 위령기도 ?

☞ 손녀가 생후22개월째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후 매일 위령기도를 바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린이들은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되어 있을 건데 위령기도를 바친다는 것이 좀 그렇다고 합니다. 위령기도를 계속해서 바치는 것이 좋을 까요? 아니면 다른 기도를 해야하는지요?

교회 공동체는 죽은 이들을 위해 함께 모여 위령기도를 바치고, 또 장례미사와 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슬픔에 동참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부활의 희망 속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인이 주님의 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기를 희망하고, 또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매 미사 때마다, 사제는 죽은 이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뵈옵게 하소서.” 이 기도는 죽음의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는 우리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위령기도는 죽은 이들이 하느님과 함께 있기를 청하는 것을 넘어서, 산 이와 죽은 이들의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떠난 영혼들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을 기도를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위령기도는 물론 세상을 떠난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슬픔에 빠진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슬픔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것을 기억에서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매님의 믿음이 지금의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홍성민 신부 / 부산교구 임호성당 보좌신부